

2026년 9월 10일: 유가 100달러 돌파와 글로벌 자산군 연쇄 반응

매크로 (Macro)

\$100 유가 돌파
(WTI \$96.10, +\$2.62)

- 미·이란 갈등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로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.
- 美 10년물 국채 금리 4.849% (+5bp) 급등.

FICC (Anomaly)

\$500 금 돌파
(+\$18)

- 달러 약세(-0.32)와 안전자산(금, 비트코인 \$103K)의 역행 랠리 발생.
- 전통적 공식을 깬 이례적 매크로 신호 포착.

글로벌 증시 (Global Equity)

-0.48% vs **+1.57%** S&P 500 vs DOW

- 미 증시 내 기술주 약세와 가치주 강세의 극명한 디커플링.
- 아시아·유럽 증시는 하락장 속 방어력 입증.

국내 증시 (Domestic Equity)

7,033.92 KOSPI
(-0.25%)

- 외국인 524.6만주 매도에도 기관 매수(374.4만주)로 방어.
- 100조 원 대기자금 유입되며 7,000선 사수.

이란 지정학적 위기가 촉발한 국제 유가 100달러 시대의 재림



에너지 쇼크가 채권 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 디커플링으로 전이되는 경로



전통적 공식을 깬 FICC 시장의 기현상: 안전자산 급등 속 달러 약세

교과서적 시나리오 (Expected)

지정학적 위기 및 유가 상승



인플레이션 우려 및 금리 상승



강달러 현상 및 원화 가치 급락

2026년 9월 10일 실제 시장 (Reality)

이례적 달러 약세

 달러 인덱스 **0.5** (-0.32 하락)

대체 안전자산 동반 랠리

 금 **\$500** (+\$18)
 비트코인 **\$103,000** (+\$1,240)

유로/원화 강세

 EUR/USD **1.1790** (+0.0031)
 원·달러 **₩1,338.68** (-5.30원 하락)

Key Insight: 달러 중심의 안전자산 선호가 아닌, ECB 통화정책 경계감(유로 강세)과 금·비트코인으로의 자금 분산 현상이 두드러짐.

미국 증시의 극명한 디커플링: 기술주 이탈과 가치주·에너지로의 자금 이동

S&P 5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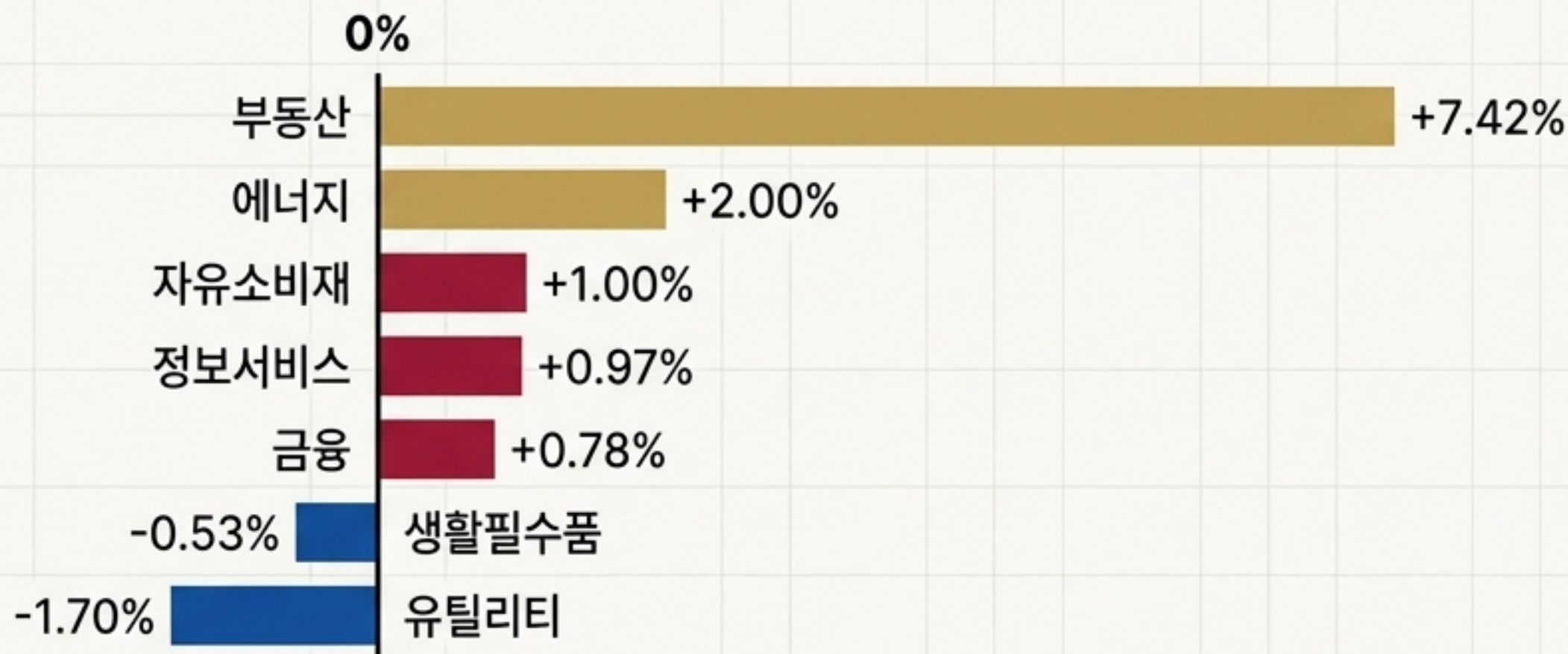
7,636.36 (-0.48%)

대형 기술주 약세 주도

DOW JONES

52,380.66 (+1.57%)

가치주 중심의 상대적 강세 시현



금리 상승이 랠리 지속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며, 실적과 AI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방어/가치주 위주의 재편 진행 중.

기술주 조정장 속 역발상 베팅: 국내 개인 투자자의 나스닥 ETF 기록적 순매수

2조 원 돌파

TIGER 미국나스닥100 ETF
올해 개인 순매수액

Counter-Trend 분석

- **시장 상황:**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대형 기술주 약세로 인한 S&P 500 전반적인 하락장 전개.
- **투자자 동향:** 거시 경제의 조정 압력에도 불구하고,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기술주 시장에 대한 매수세 유입 지속.
- **핵심 시사점:** 장기 성장 동력(AI 등)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가 단기 매크로 충격을 상회하며 매우 견고하게 유지됨.

코스피 7,000선 고지전: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와 기관의 방어

- 미국 금리 급등 부담
- 유가 100달러 충격
- 동시만기일 경계감

하방 압력:
외국인 순매도
524.6만주

- 미국 금리 급등 부담
- 유가 100달러 충격
- 동시만기일 경계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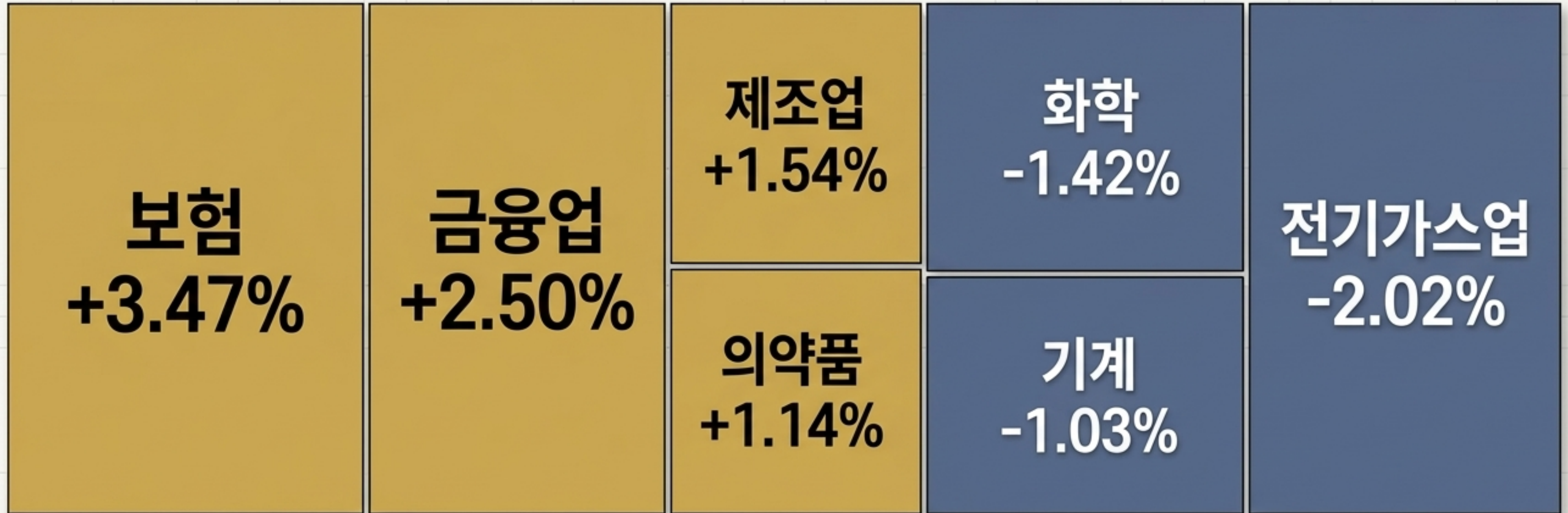
방어선: KOSPI 7,033.92 (-0.25%)

- 국내 기관 저가 매수 유입
- 증시 대기자금 100조 원 회복
- 코스닥(+0.79%) 반등 모멘텀

상방 방어:
기관 순매수
374.4만주

- 국내 기관 저가 매수 유입
- 증시 대기자금 100조 원 회복
- 코스닥(+0.79%) 반등 모멘텀

국내 증시 자금 이동 히트맵: 보험·금융 방어력 상승 vs 기계·화학 부진



시총 상위 방어 현황

삼성전자 269,000원 (-0.19%) | SK하이닉스 1,853,000원 (-0.16%)

반도체 대장주의 제한적 하락이 지수 방어에 기여. POSCO홀딩스(+0.59%), 현대차(+0.26%), 기아(+0.16%) 동반 상승 시현.

뉴욕 증시 하락에도 방어력을 입증한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 증시



유럽

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 & 방산주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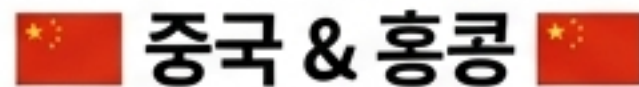
DAX: 24,998 (+0.80%) | FTSE 100: 10,556 (+0.79%)



일본

엔화 약세 기반 수출주 강세

닛케이 225: 56,734 (+0.46%)



중국 & 홍콩

본토 정상 거래 중 가장 강력한 반등 시현

항셱: 22,944 (+1.59%) | 상하이: 3,215 (+0.45%)



호주

자원주 중심 상승장 주도

ASX 200: 8,555 (+0.52%)

단기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매크로 이벤트 타임라인

9/10 (오늘)

9/11 (내일) - 핵심 분수령

9/15 ~ 9/16 (다음 주)

 중국 CPI (예측 0.8%),
PPI (예측 3.6%) ★★★

 한국 실업률
(이전 2.8%) ★★★

 ECB 금리 결정
(예측: 2.65%) ★★★

 라가르드 총재 연설 및
기자회견 ★★★

 미국 Core PPI 및
신규 실업수당 청구 ★★★

 중국 소매판매 및
실업률 발표 ★★★

 중국 신규 대출 및
고정자산투자 ★★★

단기 대응 전략 3원칙: 방어적 자산 배분과 이벤트 확인 후 재진입



1. 자산 재배분 (Sector Rotation)

방어주 및 에너지 비중 확대

유가 수혜 에너지 섹터 및
방어주(보험/금융/가치주)
중심의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.

근거: 유가 100달러 돌파와 미 증시
내 DOW 지수(+1.57%)의 극명한
상대적 강세.



2. 리스크 관리 (Risk Management)

기술주 단기 축소 및 헤지

미 국채 금리(4.849%) 상승세
진정 전까지 대형 기술주 비중
단기 축소 및 헤지 구축.

근거: 금리 상승이 랠리 지속의 최대
변수이며, 글로벌 증시 형동지나
변동성이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.



3. 트리거 확인 (Wait for Triggers)

통화정책 및 환율 향방 점검

9/11 ECB 금리 인상(예상 2.65%)
여부 확인 및 유로·원화 강세
심화 추이 점검 후 재대응.

근거: 환헤지 전략의 핵심 변수이자
FICC 시장 변동성의 향방을 가를
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성.